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 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력일>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매사 놓고 돌아가야 여여히 할 수 있어

15면에서 계속

듣고 다음날부터 저는 '그래, 나는 우리 가족 때문에 산다고 하자.' 하고 마음먹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끊임없이 이런 의문들이 밀려옵니다. 스님! 왜 산니까? 무엇 때문에 산니까? 죽으려고 산니까? 죽지 못해서 산니까? 남을 위해서 산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산니까? "참나"를 위해서 인니까?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짧은 순간일 뿐이고 기쁘고 좋다고 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동전의 뒷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산다는 것은 부자유하고 그나마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아무도 원치 않는 무(無)로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고통이 집착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그 집착을 떨쳐야 도에 이르게 하시는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나쁜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아이구, 왜 이런가 괴롭다, 나만 이런가.' 하시며 한탄과 낙담에 빠지기도 하시죠? 물론 세상에는 하나도 가질 것이 없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하나도 버릴 것 또한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내 근본에서 가지고 온 공부 재료죠. 심지어는 망상조차도, 망상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참 지혜를 알 수 있을 겁니까? 고통을 몰랐다면 어떻게 참 기쁨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 그것도 그냥 우리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이 중(中) 세계는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참사람을 만드는 공장 말입니다.

우선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다 고통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것을 그냥 믿으시고, 그 것들을 믿고 그것만 쥐고 '너만이 딱히 살릴 수가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너만이 딱히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게 할 수도 있다' 하면서 모든 걸 거기다, 일거수 일투족을 거기다 다 놓을 때 비로소 고통도 고통이 아니라 기쁨도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가 진리의 한 모습이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그 본의도 모든 것을 근본을 의지해서 믿고 실천해 나가는 그 속에서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주위에서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과거를 보러가는 길에 주막에 들었는데 어느 스님이 백지를 보고 있더라요. 그런데 과거보러 가는 사람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냥 백지만 보고 앉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노스님은 어째서 백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지도 볼 게 없는 백지를 왜 보십니까?" 하니, 그 노스님이 하시는 소리가 "자네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과거를 볼 수 있지."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뿐만 아니라, 백성

을 제도하는 데도 역시 백지를 볼 줄 알아야 제도를 할 수 있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여 그 도리를 터득하고 후에 과거를 봐서 어사 박문수가 되었다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책을 보고 남의 말을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채워 놓고 그거를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것인 양 얘기를 하고 써도 그거는 진정한 내 이야기기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본다 하더라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만반의 근원이 지혜롭게 한 글자에서 나오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백지라는 거는 정신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보이는 몸종이와 지식을 채워놓은 생각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생각하기 이

그러나 진드기처럼 이름을 가지고 늘어 붙어서 아물 노릇 할 때에 내가 아물이다 하고 고정시켜 놓으면 남편 노릇도 못하고 아버지 노릇도 못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그걸로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에 전부 놓고 돌아가면 아주 다양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것저것을 다 여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을 자는 24시간동안 어떤 것을 하든지 그냥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자식이 불렀을 때 아버지 노릇을 하고 부인이 불렀을 때 남편 노릇을 하듯이 용도대로 따지는 대로 머무름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그 근본에서 그렇게

일거수 일투족 근본이 하는걸 놓치지 않고 지켜 보는게 참선

전의 내외 의지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결정해서 지어준 훌륭한 사람이나 잘산다는 것은 사실 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오직 보이지 않는 나의 근본에서 서만이 나를 훌륭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지혜롭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고 드는 모든 생각이나 걱정을 나의 근본에 모두 일임해서 살아가다가 어떠한 결정의 순간이 올 때 나의 근본에 답을 구해서 진실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훌륭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의 마음이 떳떳해지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나의 근본, 주인공에게 맡기고 주인공만이 나를 참담하게 이끌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 보는 것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루종일 돌아다니다가 하루에 30분이라도 앉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반문하기 이전에 '당신이 이렇게 오를 하루도 이끌어줘서 감사하구나. 당신이 분명히 이끌고 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당신을 만나지 못해서 당신이 정말로 알 수가 없으니 당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 하고 직교소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 가슴이 허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을 근본에서 들이고 낸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근본에서만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고 지극하게



그림 · 최주현

주인공이 하면 '수행' 내가하면 공부 못돼

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 바래요.

무상함을 깨달고 싶습니다

문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는 사람들과 리 모임이 있으면 같이 술을 마신다든가 밤새 고스톱을 한다든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일을 하는 이런 일상의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참선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선은 발붙이고 있는 현실세계를 중요시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상에서 어떻게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허깨비 같은 삶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절실한 것이 없어서 그런지 그만그만한 일들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문 우리가 사는 걸 가만히 보세요. 집에서 자식이 '아버지' 그러면 그 때는 아버지 노릇을 하죠? 부인이 '여보' 하면 남편 노릇을 하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에비야' 하면 자식 노릇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걸 나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남편으로서의 내가 나입니까? 아버지로서의 내가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듯이 어느 걸 나라고 못박을 수 없는 그 나. 그렇게 자동적으로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믿고 뛰어 넘을 수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내것 아니라는데

문 부처님 말씀과 불교의 진리대로라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진정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어떠한 내가 육도윤회를 하는가?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라면 영혼은 어떠한 존재인가?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니라면 천도재와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문 부처님께서 제행(諸行)이 무상(無常)하다고 가르치신 것은 모든 것이 덧없다거나 비관적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고, 생기면 없어지게 마련인 이 세간법을 넘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결코 늘지도 줄지도 않는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해서 그와 같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이(我)가 없다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으로서의 나는 분명 없는 것입니다. 중생이 그렇게 아귀고 소중이 여기던 그 나라는 몸종이는 의식과 관습과 생각이 뭉쳐 있는 것

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진정한 실체가 아닌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근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 바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쓰다 보면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쓰다 보면 악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양면을 다 봐야 하니까요. 그 양면을 놓는 법이, 선은 감사하게 놓고, 악은 악이 나오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악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그 자리다 하는 것을 모두 거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못 쓰면은 바위에 나쁜 것도 감기고, 또 좋게 마음을 써서 악이 거기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선으로 써 입력이 되는 거죠. 그 입력이 된 것을 바로 영(靈)이라고 그러합니다. 영! 그

리고 혼백(魂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본 불성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우리가 마음을 내외 선하게 써라 이러는데, 부처님의 마음공부에는 약한 것도 선한 것도 다 바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쓰다 보면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쓰다 보면 악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양면을 다 봐야 하니까요. 그 양면을 놓는 법이, 선은 감사하게 놓고, 악은 악이 나오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악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그 자리다 하는 것을 모두 거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혼자 왔다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생의 도리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을 받치고 땅을 디디듯이 자신의 근본을 의지해서 살고 하늘을 받치고 일체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아무리 좌로 꿰고 우로 꿰는 자신의 마음을 알지못한다면 그것은 허탕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게 하는 자신의 근본에 모든 것을 일임해 놓고 진실하게 생활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법은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가장 진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천차만별로 자기 몸종이 속에 갇혀서 멋대로 나오는 그 의식이 자기인 줄로 알고 살지 마시고, 모든 생각들을 다 놓아두고 굴러놓아 과거에 산 대로 입력되어 있는 나의 삶과 운명을 바꾸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이니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독존과 유일신의 차이

문 부처님의 탄생계승인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또 아상과는 틀릴텐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요. <순타니파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중에서 지혜를 얻은 이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이 있는데 자신이 독도하여 지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상이 아닐런지요. 이 구절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혜가 열렸다 하더라도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매한 중생이 현답을 기다립니다.

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제일이라 하는 말로 알아들었던 말입니다. 문자만 달달 외워서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아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물론 부처님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은 더욱 더 아닙니다. 불교라는 이 자체가, 우리 자체가 그냥 여여히 때문에 얹은 것도 높고 높은 것도 높으니 어느 것 하나 높지 않은 게 없으니라 해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거죠. 어느 가정이든지 남편이 높지 않은 가정 없고 자식이 높지 않은 가정 없듯이, 또는 바다에서 보면 배사공이 높고, 농사짓는 데 가면 농사짓는 사람이 높고, 정치하는 데 가면 정치인이 높고 모두가 하나도 높지 않은 게 없죠? 산도 높은 게 있으니까 높은 게 있지요. 높은 게 있으니까 높다고 하지 않은 게 없는데 어떻게 높다고 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평등한 진리며 모두가 둘이 아닌 도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외국에 나가봐도 그렇고 타의에 의해서 꼭 상대를 놓고 믿어요. 상대를 놓고 찾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대성인들, 역대 조사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이 세상 돌아가는 법을 알고 우주의 섭리를 아나니라. 네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가 어디 있고 종교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 너부터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너는 겁대기인 나로서가 아니라 참나, 그러니까 나라고 세울 게 없으면서 일체만물과 공생·공식·공용·공심·공체하는 나인 것이지요. 나는 그걸 주인공이라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전체와 가설이 되어 있는 한마음의 주인공이지요. 그래서 이 몸종이 움직이는 거, 한생각 들고 나는 거, 생명의 에너지를 다 동용시켜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바로 주인공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한다고 믿어 주인공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밝혀야 하는 진리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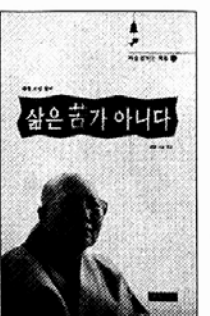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혼자 왔다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생의 도리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을 받치고 땅을 디디듯이 자신의 근본을 의지해서 살고 하늘을 받치고 일체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아무리 좌로 꿰고 우로 꿰는 자신의 마음을 알지못한다면 그것은 허탕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게 하는 자신의 근본에 모든 것을 일임해 놓고 진실하게 생활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짜된 안목을 벗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역시이웃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